몸안 중생과 한마음 되면 응신·화신

☞ 17면에서 계속

신 게 아니니까 내 것만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번 것만은 아니잖아요, 더불어 같이 벌었으니까. 한마음 거지 내겁니까?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입니다. 나는 심부름꾼밖에 안 되니까 심부름만 부지런히 하면 될 거다 하고 사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돈이 허탈히 나가지도 않을텐데.

마음의 문 여세요

인간에게도 다스리는 선장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선장이 있고, 중심에서만이 다스릴 수 있지 남이 다스려 주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서만이 다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딴사람이 절대 다스려 줄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거 50%, 보이는 거 50% 반반입니다. 허공에도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난 그래서 그래요. 한 명이 와서 묻더라도 이 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많이 안 와도 법당이 꽉 차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마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는데, 벌레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눈들을 보세요. 허허허. 눈들을 보면 죄 어질고 착하고 아주 똘똘하고 영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 어쩝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마음을 훌랑 벗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벗고 못 벗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제삼자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길게 말을 했나요? 말로는 체계 있게 못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를 알아들더라도 실천을 하세요. 내가 없는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나부터 믿고 찾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당의 불상이 진짜 부처인 걸 알게 됩니다. 옛날에 6·25가 나니깐 말입니다. 그렇게 모셔놓고 빌고 털고 씻고 닦고 하던 부처님들을 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 왜버리고 떠납니까? 가족 속에 다 넣어 가지고 다녔으면 그렇게 갈 때도 버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면서 개선해야 할거는 개선하고, 팔만대장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그대로, 그 내면의 뜻을 알고 글자를 읽어야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읽어서 말로는 잘한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거지.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한데 떨어지지 않아야, 안팎이 꿰진 말이래야 남들한테 이익이 가고 공덕을 나누어 줄 수 있어. 안팎을 꿰지 못한 말은 한데 그냥 떨어지게 되니 모두 상대방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게 공덕이라는 거지.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모두가 가설이 돼서, 사과나무도 서로 사랑을 하구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사랑이 있기 이전에 자비가 있다고요. 사랑은 갚싸지만 자비는 세세생생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문학자도 되고, 천체물리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아니 되시는 게 없어.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조복을 받아서 그 의식을 다 분자로, 아니 분자가 돼서 입자로 화해서 모든 게 다 응신으로 화해서 원을 세운 사람들한테 응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야 돼지를 건지지. 사람으로 나타나면 돼지가 저항력을 느껴서 건질 수가 없거든. 돼지로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돼지를 건질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사람을 건질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응? 천차만별의 그 생명체들을 건지는데 어떤 거를 건질 때에 내가 건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어떠한 걸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부처지, 어떠한 거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모두 그런 도리를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싹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리며, 또는 푸르렀을 땐 어떻게 다스리며, 꽃몽오리가 졌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며, 꽃이 붉게 익었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도리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첫 번 째도 죽고, 두 번 째도 죽고, 세 번 째도 죽어라. 첫째는 내가 탄생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둘째는 탄생을 했으나 둘 아닌 도리를 몰라서 또 죽어야 하고, 셋째는 둘 아니게 나툴 줄 모르니까 또 죽어야 하고…. 구경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안과 밖을 뀌어서 나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말을 꼭 해야만 에너지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일체 만물 만생 우주천하가 다 가설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만 켤 줄 알면 되거든요. 그러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꼭 누를 때를 눌러야 되는 거지, 아무 데나 눌러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관해서 누르는 거를 배우



그림 · 최주현

나 없는데 누가 있습니까 나부터 믿고 찾으세요

셔서 그대로 하신다면,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이.지금 나타나서 "아이고 착해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어찌 그렇게 같으냐…" 하시며 궁둥이를 두드려 줄 겁니다, 아마.

공부 대신할 수 없어요

▲질문자1: 저는 금산여중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나누어주신 팜플렛에 보면은 제일 첫 장 뒤에 스님 말씀이 기록돼 있거든요. "강이 없는데 배가 있으며, 배가 없는데 건널 게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강도 없고 배도 없고 건널 것도 없는데 깨친 사람은 무엇이고 미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또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고 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 강을 건널 게 없기 때문에 건너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얼른 쉽게 선생님이 지금 집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어떠세요? 집에 가는 길에 강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갔다 오실 수 있겠죠? 어디에 뭐가 놓이고 어디에 뭐가 놓여 있는 거 까지도 다 아시죠? 그런 것과 같아서, 부처님의 마음은 그와 같아서 여러분도 그 도리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억겁을 살아오면서 누적이 된 습성을 녹이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의식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불바퀴를 넘어서려 해도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갑니다. 내 업식이 천차만별로 그냥 모여 있는 데를 건너가야 될 텐데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어 못 건너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겠느냐. 배가 없는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느냐 한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나쁘다 좋다, 틀렸다 옳다 한다면 도의 길은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경전을 많이 읽고 안 읽고, 상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대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질문자2: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법 가운데서 이미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할지 수행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살아 있으니깐 나왔겠죠. 그 어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들이는 것도, 내는 것도, 생각을 한 것도, 말을 한 것도 바로 그 자체에서 한 겁니다. '자'는 몸으로 비유할 수 있고, '신'은 자기 불성을 말해도 됩니다. 자신 속에서 모든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바로 뿌리, 즉 말하자면 한마음 뿌리,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물어보세요. 거기서만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있다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거기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을 읽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안팎을 꿰어서 알아야 경을 볼 때에 한번만 제껴 봐도 그 경에 줄줄이 다 '이건 무슨 말씀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로구나' 하고 알게 돼요. 첫머리 중간 끄트머리만 봐도 알게 되고, 무불통지한 사람은 벌써 책 들고 첫 머리만 떡 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백지를 볼 줄 알아야지, 백지를 못 본다면 어떻게 삼라만상의 모두를 볼 줄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천안통이 도가 아니니라, 천이통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도 도가 아니니라, 타심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통 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리는 거지, 어찌 오신통 안에서 오신통을 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릴 수 있고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누진에서 책정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중용을 하게끔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쥘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지마는 현현하게 여러분이 계신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 대신 죽어줄 테니 믿습니까? 아픈 거를 대신 아파 줄 테니 믿습니까? 똥을 대신 눠 주니 믿습니까? 대신 먹어주니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지금?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이 공덕이 되며, 가정이 화목하며, 위로는 조상이, 한 자손이 이 공부를 하면은 위 조상들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고, 밑으로도 자녀들을 모두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돌에 올려 세워 놔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이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위로는 조상들을 건지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자생

자비는 영원한 것

중생들을 조복을 받거나, 또 아래로 낳아 논 자식들을 영원토록 불생불멸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게 건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저 요만큼 가지고 가서, 내가 요거를 가지고 가서 큰 걸 좀 얻어야지 하구선 부처님 앞에 요만큼 갖다 놓고는 그냥 뭐 천 가지 만 가지 해 달라고 이것저것 줏어 섬긴단 말입니다, 속으로. 하하하. 그게 그렇게 섬겨서 될 일이 아니죠. 단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짬지게 그냥, 맑은 물로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능력을 길러야죠. 안 그럽니까?

▲사회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이나 안양본원으로 직접 찾아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5년 4월 13일 대전대불련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뜻지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2기 학인 모집

Ⅰ. 승려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 나이 제한 없음, 중졸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Ⅱ. 포교사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환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교육방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 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종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수업료 일체 무료. 단,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671-7751~3 팩스 : 033)671-7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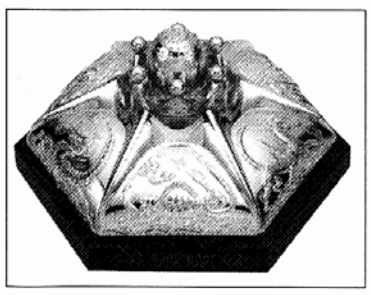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종립 근본불교 승가대학

좋은 명당을 만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흑 명당육氣방은
좋은 명당터가 되도록 합니다.
절터, 집터, 공장터, 상가(점포)터에
좋은 명당이 되도록 하십시오.
地氣와 生氣가 응집되지 않는 터는 악터나 사기터 이므로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조상의 묘지터를 좋은 명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터란 氣가 없으면 명(命)을 다한 것이므로 잘 되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 명당육氣방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사찰 암자 철학관 풍수학 氣학문을 하시는 곳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상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 카우스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